

광주·전남 미래 발전 동력 ‘국정과제’ 2개월 안에 판가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8월께 국정과제 확정
지역 ‘핵심 현안’ 채택 여부 촉박
市 “이번 주 공약 구체화 마무리”
道 “논리 개발·건의활동 총력전”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하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된 광주·전남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해 2개월 간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광주·전남

도가 지역 미래 발전 동력이 될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하면 60여일 안에 국정과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해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은영5개년계획’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대선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별 세부 계획서를 취합,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대선 공약과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현안들을 다시 추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약사업별로 국정과제 채택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선 공약에 담긴 광주지역 현안은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정식 출범하는 만큼 현안 토론 과정을 거쳐 국정과제를 작성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실·국별로 각 공약사

업의 세부 실행 계획서를 취합하는 등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구체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도 이번 주 중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를 최종 확정된 뒤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일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한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한 데 이어, 10일에는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발굴 보고회’를 여는 등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정부부지사

가 TF 단장을 맡았던 것과 달리 김 지사가 직접 TF를 진두지휘하며 현안 반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대선 기간 중 집중 건의한 전남 미래 발전 핵심과제·도정 현안 중 국정과제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 정책 공약, 광역 공약, 시·군 공약 중 핵심 현안과 연계된 과제, 공약집에는 없지만 국정과제에 반영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등 총 104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발굴 과제는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7대 광역 대선 공약과 22개 시·군별 공약을 총망라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양시원 기자



장마 대비 하수암거 시설 점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12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하수암거에서 집중호우 시도심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남구청 공무원과 시설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장마철 자연재난 피해 막아라” 道, 선제대응 총력

재해 취약시설 5만1천여곳 전수점검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 구성 운영

전남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자연재난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제1호 태풍 ‘우딕’과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등 자연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 실·국과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

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열린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재난의 발생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의 달’로 지정하고 하천·산림·농업·항만·지하공간 등 분야별 재해 취약시설 5만1천31개소를 전수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모두 마쳤다. 또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농어촌공사, 보성강수력발전소 등 물 관리 관련 기관과 협업체를 구성해 댐과 보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 부단체장들에게는 태풍과 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대다수 재난사고가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일몰 전 선제적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남도는 올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재해위험지역을 예찰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의 대피를 도와주는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를 구성,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9월 장흥에서 집중호우로 물에 찬 도로를 건너던 어르신이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올해는 호우, 태풍, 강풍 등 위험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국민행동요령을 포스터, 카드뉴스, TV 자막 방송, 안전문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주말·휴일 최대 120mm 비

이번 주말·휴일 광주·전남에는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광주·전남 전역에 비가 예보됐다.

13일 이른 오전부터 14일까지 내리던 비는 15일 자정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다 정오께부터 16일까지 다시 내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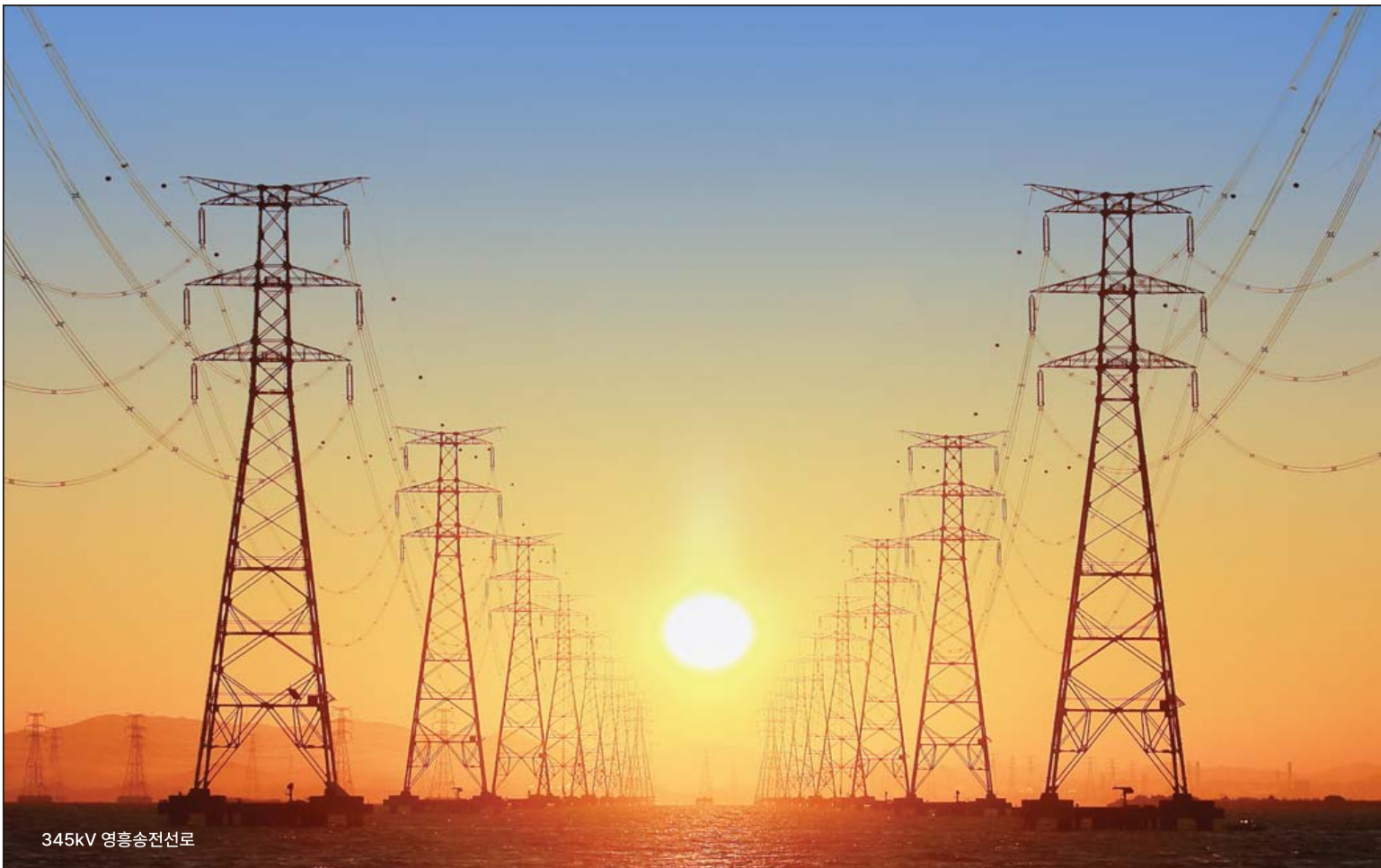
13-14일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으로 예상됐다. 특히 14일 이른 오전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고 그치길 반복하는 동안 광주·전남은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으나,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다.

13-15일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17-26도, 20-28도, 19-28도로 예보됐다. 16일 최저기온은 19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으나 최고기온은 구름이 30도로 가장 덥겠으며 나머지 지역의 최고기온은 25-29도 분포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에 필리핀 동쪽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13일부터 광주·전남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며 “유입되는 수증기의 경로 등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저지대와 침수 취약지역은 사전 점검과 최신 예보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정 기자

Today	
5월의 이름 ‘기억이니은이인권문화제’	6면
키워드로 보는 영화이야기…‘대동세상’	14면
특점 데이터로 분석한 KIA 승리 공식	16면



345kV 영흥송전선로

함께 밝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변화
전력망 확충에서 시작됩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충분한 전력망 구축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